

제231호 · 발행일 : 2014. 7. 30(수) · 발행인 : 양양군수 · 편집인 :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033)670-2223 / Fax(033)670-2276

작렬하는 여름 태양 아래 푸른 물살 가르며 힘찬 출발



사진 /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이정철

작렬하는 여름 태양 아래
푸른 물살 가르며 힘찬 출발

푸른 동해바다를 가르며
바람에 실려 미끄러지는
요트의 넘실거림이 정겹다.

작렬하는 태양에 한안포말
정열의 계절을 맞은 수산항
그곳에 새로움이 묻어난다.

정겨운 사람과 자연의 조화가
무더운 여름, 추억을 선사하며
끊임없는 개척을 가능케 한다.

지 면 안 내

- 2면 민선6기 김진하 군수 힘찬 출범
- 5면 고속화 대비 주요 관광지 조성사업 '순조'
- 8면 블루베리 소득증대 '효자노릇'
- 11면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

- 3면 제2그린농공단지 분양 시작
- 6면 양양해변 다채로운 여름축제 선사
- 9면 어려운 이웃돕기 공동경작 잇따라
- 12면 생활정보

- 4면 백두산 지름길 양양~중국 연결노선 재개
- 7면 우리군 향토문화역사 재정립 기틀 마련
- 10면 "우리역사 바로 배워 보람 커요"

민선6기 김진하 군수 힘찬 출범

우리군 가상사이버도시 조성...소지자 할인혜택 부여

김진하 제30대 양양군수는 지난 1일 오전 10시 문화복지회관 공연장에서 공무원과 지역주민,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김진하 군수는 이날 취임사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군민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신 큰 뜻과 가르침에 보답하고자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최고에 도전하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앞으로 참여하는 행정, 공감하는 행정, 삶을 풍요롭게 하는 행정, 신뢰하는 행정으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동서·동해고속도로 시대에 대비한 각종 인프라 구축으로 침체된 양양경제를 되살리고 오색삭도를 반드시 유지해 고속화시대 명품관광도시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며 “민선6기 양양군정은 변화의 시대에 걸맞은 강한 추진력과 함께 환경과 생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치를 통해 미래 양양의 100년을 설계하는 초석으로 다져나가겠다”고 확신했다.

김 군수는 이날 취임식에서 오전 9시30분 양양읍

현산공원의 충혼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한 뒤 취임식장으로 이동, 취임선서와 취임사를 하고 기념촬영을 마친 후 양양의 노래를 제창하며 힘찬 민선6기를 시작했다.

“현장·민생중심 일하는 의회상 실현”

제7대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 최홍규·부의장 이영자



우리군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에 최홍규(60) 의원, 부의장에 이영자(52) 의원이 선출됐다.

군의회는 지난 1일 오전 8시 제1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제7대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선거를 실시하고 재선의 최홍규 의원과 비례대표 이영자 의원을 전반기 의장단으로 선출했다.

이어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7대 양양군의회 개원식에서는 의정동우회원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선서 및 이영자 부의장의 의원윤리강령 낭독, 최홍규 신임의장의 개회사와 김진하 군수의 축사가 진행됐다.

최홍규 의장은 개회사에서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과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들께 중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7대 의회는 현장과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활기차고 소통하고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최 의장은 또 “열악한 재정과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중앙부처와 강원도의 인적교류 및 유대관계를 유지해 해묵은 현안들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우리군의회 의정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선진 의회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문의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670-2801

“고속화 발판 풍요로운 행복도시 건설”

김진하 군수...“오색삭도 맞춤형 환경전략 추진”

김진하 군수는 취임사에서 “민선6기는 군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무한신뢰의 행정력을 바탕으로 한 풍요로운 행복도시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침체된 양양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국비확보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확고한 교육여건 개선과 향토인재육성에 많은 공을 들여 양양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피력했다.

김 군수는 “동서·동해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교통·관광·문화 인프라를 대거 확충해 인구유입과 일자리 창출에 더해 노인들의 맞춤형 일자리 조성 등을 통해 행복도시 양양건설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또 “양양군민들의 염원인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환경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환경에 포인트를 맞춘 전략을 세워 반드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양군의 핵심사업인 양양한우 브랜드화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해 농가경영 부담을 줄이고 이를

오색삭도와 연계한 먹거리 관광자원으로 활용, 동해안 관광1번지를 건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노인들이 안전하고 외롭지 않은 노년을 보내도록 홀로노인의 안부와 건강에 대한 시책을 강화하고 다문화 가정이 대접 받을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동시에 불편한 농어촌의 교통문제를 ‘사랑택시’ 사업으로 보완, 해결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남대천의 생태환경을 복원해 수변을 순환하는 관광단지를 조성, 차별화된 명품관광을 통해 미래 100년의 양양관광 초석으로 다지겠다”고 확신했다.

더불어 도약하는 민선6기를 맞아 지난 선거기간에 군민들에게 약속한 7대 핵심과제에 대한 실현 가능한 세부단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상시적인 추진상황 점검과 면밀한 심사평가를 통해 확실하게 이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7대 핵심과제는 △핵심숙원과제 해결과제(오색삭도 유지 및 관동대 양양캠퍼스 실용적 기능전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고속화시대 미래 도시기반 구축△균형 있는 지역개발 △남대천 생태관광지 조성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어업 육성 △지방자치역량 강화 등으로 조만간 최종 핵심과제를 채택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양양군은 이에 따라 공약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분기별 1회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해 부진사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등 공약사항이 현안사업 이행으로 추진되도록 완성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김진하 군수 첫 업무보고 청취

“창의적 아이디어로 효율성 극대화 주문”



김진하 군수는 민선6기를 맞아 지난 8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17개 실과소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본격적인 군정 운영에 들어갔다. 김 군수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각 실과소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을 꼼꼼하게 청취한 후 면밀한 관리와 향후 추진 경과를 살피도록 지시했다. 특히 한정된 재원을 통해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예산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주문했다.

제2그린농공단지 분양 시작

12블록 m²당 11만4,830원...친환경 기업유치 총력

우리군이 지난 2013년 착공한 제2그린농공단지 가 오는 8월 완공을 앞두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다.

군은 양양읍 포월리 산 40번지 일원 10만5,497 m²의 부지에 총사업비 88억3,500만원을 투입



해 12블록을 조성하고, 식료품, 음료,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등 굴뚝 없는 친환경 기업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식료품의 경우, 도축·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등 많은 폐수가 배출되는 품목은 입주에서 제외되고 기타 제조업은 사업성 검토 후 입주가 가능하다. 이곳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증설된 포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과 연계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친환경 농공단지로 도약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친환경 공장이 들어서 는 산업용지 12필지 6만800m²를 대상으로 분양에 들어간 가운데 분양 가격은 m²당 11만4,830원(평당 37

만9,600원으로 입주기업은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5년간 50% 감면 등의 특별한 세제혜택과 함께 투자기업에 대한 융자 및 보조금 지급 등의 기업지원도 주어진다.

특히 군은 제2그린농공단지의 산업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성장 가능성이 큰 식품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음.식료품업체 등 우수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인접한 포월농공단지의 포화상태를 해소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및 군세입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 수입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의 경제도시과 기업지원 담당 670-2124

“젊은이들 다시 찾는 양양 만들자”

올해도 대학생 문화활동 추진...인지도 향상 기대

지난해 우리군이 첫 시범운영에 나서 호응을 얻었던 대학생 문화활동이 올해도 40명을 대상으로 ‘젊은이들이 다시 찾는 양양을 만들자’는 모토 아래 진행된다.

군은 여름방학기간 중 3박4일간 관내 1개 마을을 선정해 대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재능 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리군과 해당마을, 협력 기획사인 상상마당은 공동으로 문화활동을 진행할 계획인 가운데 군은 기본계획수립과 마을선정, 행사진행안내, 프로그램개발, 홍보활동 진행 등을 맡고 문화기획사는 프로그램의 진행 및 참여 대학생 모집, 후원기업유치 등 체계적인 업무분장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군은 1,580만원을 들여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대고 참여 학생들의 교통 및 숙식 등은 후원기업이 부담해 사회적 공헌사업 참여에 따른 기업홍보효과를 거양토록 할 계획이다.

대학생 문화활동의 주요 프로

그램은 지역 문화자원 및 주민에 설문조사, 전통문화 아카데미 운영(참여), 독거노인들과 대학생 3~5명이 한 팀을 이뤄 손자손녀가 되는 캠페인 ‘일가일손(一家一孫)’, 몸이 불편해 공연장에 오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자택에서 실시하는 맞춤형 찾아가는 공연 등이다.

군은 행사 종료 후 이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생성된 사진, 동영상, 그림, 글 등 모든 자료들을 모아 기록물을 제작,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참여 대학생들이 대학축제에 참여하거나 사진전을 개최하고, SNS를 활용한 활발한 사후활동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재방문 효과 등 우리군의 인지도를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는 문화와 함께 MT를 유치해 지역자원과 연계한 문화콘텐츠로써 MT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비어있는 폐교나 체험마을 등을 매개로 한 매력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70-2101

김환기 양양부군수 취임

“고향 발전 위해 가교 역할 최선”

양양출신의 김환기 강원도 예산담당관(59, 사진)이 지난 1일 양양부군수에 취임했다.

김 부군수는 이날 오후 4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환기 부군수는 “고향에 돌아와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감사드리고 그동안 강원도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양군과 강원도의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양 현남면 죽정자리가 고향으로 지난 75년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김 부군수는 양양군에서 10년간 근무한 뒤 1984년 강원도로 옮겨, 동해출장소와 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 설악수련

원 관리계장을 거쳐 지난 2001년 사무관으로 승진해 홍천군과 강원도 자치행정국 등 주요 부서에서 근무했다. 이어 지난 2010년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유치지원과장과 2011년 홍천부군수를 지낸 뒤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으로 일해 왔다.

추진력과 친화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 부군수는 지난 2012년에는 국가사회발전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장석삼 도의원 농수산위 부위원장에

운영위원에도 선임...“국비 확보 총력”

우리지역 출신의 장석삼 도의원이 제9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됐다.

조선인 장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2시 제23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선임됐다.

장 의원은 “조선인 저에게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고, 농림수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강원도와 설악권을 위해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20년간 관광경영 전문CEO로 활동하며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비롯해 강원도의 핵심인 관광산업 부양에 지렛대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우리 군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배후도시로서 올림픽 개최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관광인프라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장석삼 도의원은 “말보다는 실천하는 모습으로 지역주민들과 지역발전에 헌신할 각오로 발로 뛰겠다”며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관광패턴이 크게 바뀌고 있는 만큼 신개념의 관광정책을 입안해 향후 30년 이상 지역이 먹고 살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판매

우리지역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한 맛나고 찰진 찰옥수수를 양양군에서 판매 합니다! 직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판매기간 : 7. 14일부터
- 판매가격 : 반접(50개) 20,000원, 한접(100개) 40,000원
- 주문방법 : 양양물 접속 주문 및 전화 또는 온나라 메일
- * 전화번호 : 670-2703, 670-2704, 670-2378
- * 배송방법 : 근무지 직접 배송
- * 원할시 택배 배송

백두산 지름길 양양~중국 연길노선 재개

7월4일~9월27일까지 18편 운항...향후 정기노선 기대

국제선 황금노선으로 불리는 중국 연길과 양양국제공항을 잇는 하늘 길이 7월4일부터 활짝 열린다.

강원도는 오는 7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양양~중국 연길노선에 국제선 전세기를 운항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패키지 상품 판매에 들어갔다.

중국 연길노선에는 182석 규모의 진에어가 투입되며 7월~9월까지 총 18편이 운항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백두산 관광이 가능한 중국 연길노선의 관광상품은 백두산(북파·서파)과 두만강, 돈화를 둘러보는 5박6일 코스로 연길에서 3박하고 백두산에서 2박하는 일정으로 짜여졌다.

양양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이번 연길노선은 주로 패키지 상품으로 운영되며 가격은 비성수기에는 108만원~121만원, 성수기에는 118만원~131만원으로 중국단체비자대와 가이드비 및 기사팁은 추가로 내야 한다.

중국 연길노선의 패키지 상



품가격은 현재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성수기 왕복 항공료만 70~80만원과 비교해 50만원 이상 저렴한 것이어서 많은 수요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들의 왕래가 잦아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매회 170석 규모가 만석을 기록할 정도로 황금노선으로 불려 국내 주요 공항들이 앞 다투어 유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추진돼 향후 정기노선 개설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국내에 취업한 중국 조선족들이 취업비자가

아닌 방문비자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3~6개월에 한 번씩은 반드시 연길로 들어가 비자를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매회 100%에 가까운 탑승률 보이고 있어 이번 연길노선도 일부 편도 항공권도 판매하고 있다.

연길노선이 활성화되면 백두산과 설악산의 교차관광도 가능한데다, 중국 송이의 고장인 용정시와도 30분 거리에 있어 우리군과의 송이무역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임산부 전용주차장 이용편의 호응

우리군, 공공기관에 15면 조성...민간시설도 확대 추진



우리군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산부의 공공기관 이용편의를 위해 마련한 임산부 전용주차장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 6월까지 군청과 의회를 비롯한 관내 공공기관 15개소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15면을 설치 완료함에 따라 공공기관을 찾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이용편의가 크게 증진되고 있다.

그동안 공공 및 일반주차장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설치돼 있지만, 한시적 약자인 임산부들을 위한 주차배려가 미흡하다고 판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와 출산 및 육아의 안전성 확보, 임산부 건강보호 등을 위해 지난해 3월 제정 시행된 양양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요령에 따라 올해 729만원을 들여 설치를 완료했다.

임산부 전용주차장(1.2m×1.2m)이 설치된 곳은 군청과 의회, 여성회관, 박물관, 문화복지회관(노인복지회관), 문화원, 일출예식장과 읍면사무소 등으로 모두 1곳 이상씩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핑크색으로 눈에 잘 띄도록 조성했으며,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함께 설치했다.

설악권 첫 공동 관광상품 연내 선보인다

팸투어단 4개 시군 관광체험...관광경쟁력 주목

설악권 4개 시군이 각기 보유한 관광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공동 팸투어를 실시해 호평을 얻은 가운데 연내 첫 공동 관광상품이 선보일 전망이다.

우리군을 비롯한 설악권 4개 시군은 지난달 27~28일까지 하나투어를 중심으로 한 국내굴지 여행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 팸투어를 갖고 상품개발에 들어갔다.

이번 설악권 공동 팸투어는 강원도가 하나투어와 도내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동 관광상품 개발에 따른 것으로 비교우위의 경쟁력 높은 관광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추진돼 관심을 모았다.

수도권 여행사 팸투어단

은 첫날 인제군을 방문해 민속박물관과 여초서예관, 짚-트랙.ATV체험을 한 뒤 고성군을 찾아 통일전망대, DMZ박물관, 운봉숲길, 안보전시관, 왕곡마을 등을 둘러봤다. 이어 속초시에서 설악산을 비롯해 시립박물관, 석봉도자기박물관, 청초호, 관광수산물시장을 체험한 후 우리군으로 이동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양양국제공항과 낙산사, 낙산해변,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을 둘러본 뒤 송이요리를 맛보는 관광코스를 답사했다. 특히 팸투어단들이 설악권 4개 시군을 찾을 때마다 현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해설사들이 가이드에 나서 만족도가 높았으며, 각 지역별로 특징적인 관광코스가 마련돼 외

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설악권 공동 팸투어는 지자체 실시 후 그동안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관광정책과 설악권 4개 시군협의회의 실질적인 가동을 의미하는데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강원도가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강원도 관광활성화의 중심권역을 설악권으로 보고 실질적인 관광상품 개발에 나섰다라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설악권 4개 시군은 이번 여행사 팸투어를 기초자료로 연내 관광상품을 개발, 본격적인 판매에 나설 예정이어서 침체된 관광경기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농업인들 화합 한마당 성료

한농연 양양군연합회, 400여명 참석 결속 다져



한국농업경영인 양양군연합회(회장 김진동)는 지난 5일 오전 9시 양양군실내체육관에서 회원, 가족 및 내외빈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농업발전에 기여해온 농업경영인 및 가족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돼 농업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졌다.

특히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회원에게 표창 및 감사패 전달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회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체육대회와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로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고속화 대비 주요 관광지 조성사업 '순조'

우리군, 지경산교공항 관광지 본격화

우리군이 동해.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관광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경기부양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현남면 지경관광단지는 지리 5-1번지 일원 13만227㎡에 아웃렛, 호텔, 풀 빌라 등 민자 5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2012년 8월 발주한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이 현재 99% 완료된데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과 사전재해영향 평가서가 이달 초 강원도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이달 중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승인을 마무리하고 균유지를 매각, 내년 상반기에는 민간 투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현북면 잔교리 산 44번지 일

원 13만㎡에 민자 200억원이 투입돼 수목원과 호텔, 갤러리 등이 추진될 예정인 잔교관광지 조성사업은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이 현재 65%의 진행률을 보이며 오는 8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에 이어 오는 10월 경 관광지 지정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손양면 동호리 510-28번지 일원 74만7,889㎡에 민자 2,284억원이 투입되는 양양국제공항 휴양레저 관광지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계획을 일부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 관광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산리 해양레저단지에는 신규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고, 진소계곡 에코 투어 체험휴양지 조성을 지속 추진하며, 지역의 3대 관광지인 낙산, 하조대, 오색 지역의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4계절 관광지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군은 오색사도와 연계한 집단시설지구 재정비를 위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이달 중에 강원도 신청할 예정이며, 낙산지역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

업도 이달 중 디자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하조대(명승 제68호) 지역은 향후 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국책사업과 연계한 자원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70-2101

체험마을 소득증대 추진

11개 마을 평균소득 1억원...마케팅 등 지원 강화

우리군이 특색 있는 농산어촌 마을을 조성해 도농교류는 물론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소득 증대에 나선다.

현재 지역에는 녹색농촌 및 산촌 생태 9개 마을, 어촌체험 2개 마을 등 모두 11개소의 체험마을이 운영 중에 있는 가운데 이들 마을들은 매년 9만4천명의 체험객이 방문함으로써 마을당 평균 1억원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 대표적인 농촌 체험 마을로 자리 잡은 서면 서림리와 전통 떡으로 4계절 고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는 송천리, 힐링센터와 청정먹거리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현남면 하월천리 등은 이미 국내의 대표적인 소득마을로 성장하며 비즈니스 마을사업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비즈니스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억3,800만원을 투입해 체험학습비와 수학여행단 유치, 마을해설가 양성, 마을 사무장(4개 마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체험마을을 연차적으로 20개소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주기적인 운영실태 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특색 있고 독특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고, 농촌관광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체험마을 협의체 구성을 통한 농산어촌체험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동 브랜드개발과 홍보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인 가운데 체험마을과 연계한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협의체에 사무장 1인을 상시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학생들의 문화(문화봉사활동)를 재능기부 등으로 체험마을과 연계하고, 농어촌 유학센터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초.중.고등생의 농어촌 체험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경쟁력을 더하고 있는 향토 음식 개발을 위해 마을단위 단체 창업을 지원하고 농가맛집으로 육성해 체험마을의 고정적인 소득증대에 나설 방침이다.

양양농협 '농업인행복버스' 큰 호응

의료·장수사진·법률상담 등 진행...농업인 400명 참여



양양농협(조합장 신창선)이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한 '농업인행복버스' 행사가 농업인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양양농협은 지난 27일 오전 9시 양양군실내체육관에서 양양농협 조합원과 지역농업인 등 4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농업인행복버스를 운영했다.

이날 행복버스 행사는 서울 강북·목동 힘찬병원에서 무료 의료지원 서비스를, NH개발에서 장수사진을 촬영해 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어 무료 법률구조상담과 전통타악연구소의 문화·예술공연이 펼쳐져

박수갈채를 받았다.

양양농협이 처음 마련한 농업인행복버스는 바쁜 영농철을 마친 농업인들에게 모처럼 달콤한 휴식시간을 제공해 호응이 높았다.

양양읍 화일리 김남범 씨는 "의료·문화 서비스가 취약한 우리지역에서 이처럼 좋은 자리를 마련해준 양양농협에 감사드린다"고 고마워했다.

신창선 양양농협조합장은 "앞으로도 지역농업들의 복지사업을 강화해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고 실익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양 해변 다채로운 여름축제 선사

낙산해변 7월30일~8월3일 거리공연축제 개최

올여름 양양해변이 지난 11일 낙산해변 개장을 시작으로 19개소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해변별로 다양한 테마로 잊지 못할 여름 추억을 선사한다.

낙산해변은 그동안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상시 문화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며, 7월30일부터 8월3일까지 '2014낙산비치 버스커스' 축제를 연다.

5일간 열리는 낙산비치 버스커스 축제는 낙산해변을 테마로 한 거리 공연으로 매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프리공연이,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초청공연이 다채롭게 마련돼 피서객들에게 흥겨움을 전한다.

낙산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번 축제에는 슈퍼스타K 출신의 조문근 밴드와 서울거리아티스트협동조합 소속 30팀 이상이 초청돼 음악, 연주, 마임, 마술 등 누구나 편하게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거리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낙산해변 5개 특별무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출연을 희망하는



팀들에게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프리공연 무대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최고 관광지로 손꼽히는 제주도 경우, 서귀포 등 주요 관광지에서는 주말이나 피서 성수기를 맞아 상시적인 거리 공연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동호해변은 상시적으로 전통 방식의 멸치후리기 체험을 선보이며 하조대 해변에서는 7월25일부

터 8월15일까지 '바캉스를 하조대 해변에서'라는 테마로 맨손 조개 줍기와 오징어잡기, 어부체험 등 다채로운 해변축제가 열려 무더위를 날린다.

죽도해변은 8월1일부터 3일까지 '여린 모래톱 축제', 인구해변도 같은 기간에 오징어와 조개 맨손잡기와 감자캐기를 테마로 한 '해변 어울림 축제'가 여름 추억을 선사한다. 잔교해변은 '조개 줍기와 바다속

보물찾기'를 주제로 한 '여름해변 축제'가 8월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피서객들을 찾아가고 지경해변과 남해3리 해변, 갯마을 해변도 여름테마 축제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양양군은 올여름 피서철 안전한 물놀이 문화정착을 위해 세월호 관련 안전홍보 캠페인으로 낙산해변에 의료진과 앰블런스 상시 대기해 피서객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7월17일부터 낙산해변에서 심장병 어린이 돕기 자선공연이 펼쳐지고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11번가의 희망복원 캠페인도 7월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법사랑위원회는 오는 8월2일 오후 7시 낙산해변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한여름밤의 힐링콘서트'를 마련해 피서철 청소년들의 건전한 피서문화즐거기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여름 양양해변은 특색에 맞는 다양한 이벤트가 해변별로 많이 준비돼 있는 만큼 여름특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쾌적한 해변문화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기획 담당 670-2721

'정선아리랑' 최우수상 수상

양양문화원, 제5회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속초아리랑'도 첫 우수상

양양문화원이 지난 22일 제36회 현산문화제를 기념해 개최한 제5회 강원도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에서 강릉 최춘자 씨의 '정선아리랑'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일반부와 학생부 등 도내 25개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우수상은 속초 김영순 씨 등 10명이 부른 '속초아리랑'과 횡성의 '횡성메나리', 춘천의 '춘천 목화 따는 소리'가 우수상을 차지했다. 또 양양의 '양양건불날리기 소리'를 비롯해 정선과 화천, 강릉, 춘천 등 5개팀이 장려상을 안았다.

특히 학생부에는 '원주아리랑'을 구성지게 부른 원수빈 등 중학생 2명이 최우수상을, 초등학생인 양양의 김규비가 '청춘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창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도내에서 많은 팀들과 학생들의 참여가 늘어 외연을 더욱 넓힌데다, 특히 각 지역별로 예부터 내려오던 아리랑을 전통소리로 발굴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지난 2011년부터 강원도 대회로 격상돼 열리고 있는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는 그동안 양양지역을 중심으로 개최돼 오다, 양동창 양양문화원장의 전통소

리 발굴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의지로 대회 규모가 확대되고 소리 수준도 높아져 전국대회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와 연계한 아리랑 공연이 동구리 경창대회 확대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영 양양문화원 사무국장은 "양양의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강원도에서 자리매김한 만큼 전주 대사습놀이에 버금가는 우리소리의 전통으로 발굴·보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리농요는 세조 12년(1466년) 세조임금이 양양지역에 행차, 백성들의 어려운 삶을 살피고 위로하기 위해 농요를 경창하게 했는데, 당시 관노이던 동구리란 사람의 소리가 가장 뛰어나 그를 악공으로 등용한데서 유래한다.

여성회관 교육교실 확대 운영

16주간 34개 강좌...야간반도 모집



우리군이 올해 하반기 여성회관 교육교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하반기 여성회관 교육교실을 오는 8월 18일부터 12월 5일까지 16주간 34개 강좌에 523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인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능력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해 야간반도 지속 운영한다.

수강료는 각 과목별로 2만원에서 3만원까지 과목별로 차등 징수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여성결혼이민자, 국가유공자 가족, 다자녀를 둔 가정은 1인 1강좌에 한해 무료다.

김재미 여성가족담당은 "여성회관의 교육교실은 지역주민들의 문화수준 향상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만큼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담당 670-2370

우리군 향토문화역사 재정립 기틀 마련

양동창 양양문화원장 8년 재임 마치고 명예로운 퇴임

양동창(72) 양양문화원장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군의 오랜 역사문화를 시대변천에 맞게 재정립하는 기틀을 마련한 뒤 명예롭게 퇴임했다.

양 원장은 “지역원로로서 당연히 지역과 후배들을 위해 맡은 소임을 마치고 떠나게 돼 감개가 무량하다”며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만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데 그동안의 족적이 밑거름으로 자양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회했다.

지난 2006년 제9대 양양문화장에 부임한 그는 8년간 지역의 향토문화 발굴은 물론 잊혀져가던 다양한 지역역사와 문화를 재정립하며 지역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특히 기미독립만세운동의 열을 이으며 일본의 역사왜곡에 일침을 가하고, 양양현산문화제를 지역고유의 향토문화제로 자리매김하면서 중국의 현산문화제와 차별화시켜 계속되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적극 대응하는 자존감 넘치는 역사문화 정책을 뿌리내린 것이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 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생활문

화 정작을 위해 문화학교 활성화에 공을 들여 기존 4개 강좌를 11개로 확대한 데 이어 2007년에는 지역특색에 맞는 언어창작 과정도 개설해 언어해설사 및 언어연극단 창단으로 승화시켰다. 또 38선 숨길도 발굴해 관광자원화에 도움을 주며 해설사도 양성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2011년에는 동구리 경창대회를 강원도 대회로 승격시켜 수동골 상여소리가 전국민속예술축전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발판을 마련했고 수동골 상여소리와 상복골 농요가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는 쾌거를 이뤄냈다.

그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전통문화를 생활속에서 접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지역문화 창조프로그램과 민속체험, 경로효친 문예작품 공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미래주역의 문화기틀을 다져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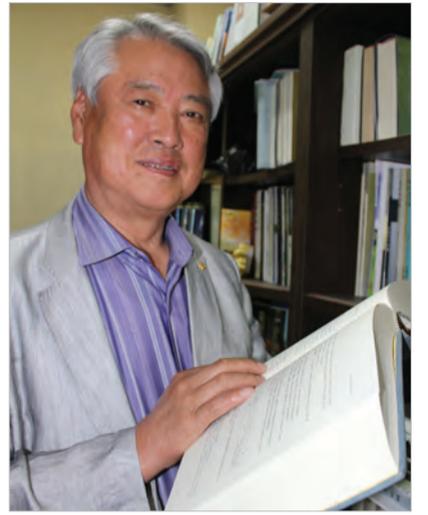
더욱이 재임 중 그동안 행정 주도로 진행되던 현산문화제를 민간중심으로 개선한 데 이어 명칭을 양양현산문화제로 개칭하며 자존감을 높이고 기미만세운동 정신 계승과 물치만세운동을 재발굴해 활성화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는 양양의 옛 사진전도

개최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전환점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에는 양양문화원 설립 이래 첫 향토사연구소를 개설해 활발한 지역문화연구 기반을 확립한 가운데 기존 양주지를 양양군지로 변경해 더욱 알찬 내용으로 편찬했으며, 현산문화 책자발간, 양양의 전통석조물도감, 양양의 6.25비화, 중국 길림성 양양촌의 이주생활사 기록, 양양철광산의 문화사 등 다양한 편찬활동을 이끌었다.

여기에 더해 연암 박지원과 양양군역사문화 콘텐츠 발굴에 나서 관광자원화의 기틀을 닦았으며,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을 시작으로 조선시대 양양부소동라령의 고찰, 동해신묘의 역사적 고찰과 이해, 일제의 창치개병 사례연구, 조선시대 양양의 누·정·대 연구 등 다양한 논문을 발표해 문화학계로부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양양군의 역사가 설악권을 넘어 영동과 강원도의 중심역사였다는 것을 과거 고증을 통해 입증하고 이를 새로운 미래역사로 잇는 기틀을 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소중한 우리역사가 미래의 거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한결 같습니다.”

양양군의 산증인으로 지역에서 많은 활약을 펼쳐온 양동창 원장은 1969년 지방공무원을 시작으로 지난 2002년 양양부군수 퇴임 때까지 34년간의 공직경험에 평소 애항심과 애민정신을 접목시켜 나가며 우리군의 역사문화를 반석위에 올려놨다는 평가다.

향토문화창달에 공헌해온 양원장은 지역언론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평소 신념을 바탕으로 지역언론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오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의 세월이 말해주듯 검은 머리가 이제는 백발만 성성해졌지만 언제나 올곧은 애항심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지평이 돼 주며 존재함으로써도 넉넉한 언덕이 되고 있다.



다문화가족 합창대회 동반 은상

우리군 합창단...라간 씨 도지사 표창



제7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열린 강원도 다문화가족 ‘사랑의 합창제’에서 우리군이 은상의 영광을 안았다.

지난달 20일 춘천KBS 총국에서 열린 이번 합창제에 출전한 우리군 합창단 ‘Ya(야)!양’은 실력 있는 지휘자로 잘 알려진 최지선 씨의 지휘로 다문화가족 30명이 조화로운 하모니를 선보였다. 특히 한달간의 짧은 연습기간에도 합창단은 구전동요 모음곡을 구성 지게 불려내 심시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최지선 지휘자는 “합창단원들 모두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전래동요를 잘 소화해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됐다”고 평가했다.

사랑의 합창제는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다문화가족 포용 및 문화적 다양성 수용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강원도가 주최하고 강원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관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양양읍에 거주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끌고 있는 필리핀 출신의 두라나 제를린 라간 씨가 정착우수 공로로 강원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제3회 KBS 양양 전국사이클대회 성료

양양선수단 동메달만 5개...경기력 향상 요구



제3회 KBS 양양 전국사이클 선수권대회가 지난달 22~28일 양양벨로드롬 경기장에서 열렸다.

지난달 22일 개최식을 시작으로 막이 올라 KBS에서 생중계된 이번 대회에서 양양선수단은 남자일반부 개인도로(장찬재)와 단체에서 각각 동메달을, 남자 고등부 단체추발에서 동메달, 여자 중등부 스크라치(

함현희)와 단체추발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동메달만 5개를 따내는데 그쳤다.

올해 대회는 양양벨로드롬 경기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사이클의 고장으로서 지난해에 비해 양양선수단의 성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지도가 요구되고 있다.

블루베리 소득증대 '효자노릇'

현재 23농가 4.7헥타 재배...고품질 경쟁력 기대



최근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블루베리가 소득증대에 효자노릇을 하며 짝짤한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관내에는 23농가가 4.7헥타의 면적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 사이에 40% 이상 재배농가가 늘어나면서 주요 소득작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양양산 블루베리는 친환경 유기농 재배로 갈슘과 철, 망간 등 몸에 좋은 성분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으며, 당도가 높고 육질까지 좋아 고품질로 평가받고 있다.

가격대도 2만5,000원~3만5,000원으로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유망작목으로 재배농가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로 블루베리 농사 4년차인 양양읍 '소성원블루베리(대표 김시남)' 농장은 1천평에 심은 1천주의 블루베리를 첫 수확해 현재 200kg을 대형마트 등에 안정적으로 판매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 농가는 수확한 블루베리를 선별해 고품질은 대형마트로 납품하고 저품질은 블루베리 잼 등으로 가공해 연중 판매할 계획이다.

양양산 블루베리는 전국에서 가장 품질 좋다는 양양송이가 북위 38도 지점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다는 점에서 타 지역보다도 상품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재배농가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양양산 블루베리 재배가 경쟁력을 인정받자 지역에서는 기존에 재배하던 작목을 전환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공무원들도 직접 영농조합을 결성해 휴무 시간을 이용한 재배에 나서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재배농가들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블루베리가 아직은 덜 알려져 브랜드화가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고품질 마케팅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안정적인 소득작목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양읍 감곡리 노인들 설악산 탐방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생태나누리 일환 30명 초청

양양읍 감곡리 노인회(회장 이기흥) 회원 30여명이 지난달 25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백상흡)의 초청으로 설악산 생태탐방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설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운영하고 있는 '생태나누리' 사업의 일환으로 생태복지 및 나눔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감곡리 노인회원들은 이날 천연염색 손수건 만들기와 권금성 케이블카 탑승, 비선대 자연관찰로 탐방 등 모처럼 나들이에 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기흥 감곡리 노인회장은 "개별적으로 설악산 탐방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의미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설악산관리사무소에 감사하다"고 고마워했다.

내년 예산편성 설문조사 실시

8월 13일까지 사이버 설문·서면조사

우리군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들의 정책제안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산편성 설문조사는 오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한 달간 우리군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설문조사와 함께 읍면사무소의 서면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며,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조사항목은 참여자 설문과 16개 기본항목 등 20개 항목으로, 군에서 예산편성 시 우선 투자하고 투자를 늘려야 할 분야를 비롯해 재정운영 방향과 개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도록 항목을 구성했다.

군은 지난해 전체 군민의 1%인 305명이 예산편성 설문조사에 참여했다며, 서면 설문조사를 늘리고 홍보를 강화해 설문 참여 인원을 2% 수준으로 확대하고, 설문조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고 반영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5년도 국비 확보 사업 발굴을 위해 9월 중 부서별 정책안 발굴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인 가운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제안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3대 과제, 10대 과제, 100대 과제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의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670-2108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우리군, 12월까지 해체위기 저소득가정 대상

우리군은 이달부터 12월까지 가족간의 갈등과 폭력으로 인해 해체위기를 맞고 있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군은 지원대상자에 대해 사업취지 설명 및 동의서 징구, 상담전문가를 통한 프로그램집중 상담 및 관리, 서비스 지원 후 변화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가족집단상담, 가족개별상담, 부부상담 등 상담유형별로 탄력적인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저소득세대(위기가정)중 가족구성원의 복합적인 문제로 가족해체 위기에 처해있어 집중상담이 필요한 가구가 사업대상이며 종합사회복지

관과 연계해 심리상담 전문가를 활용한 상담치료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상담장소는 청소년수련관 2층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이번에 마련된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위기가정 내 가족구성원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스스로 인식해 변화시킴으로서 가족해체를 예방함과 동시에 건전한 자립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담당 670-2370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제정

하반기 시행 계획...저상버스 도입 등

우리군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이용대상, 이용요금 등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용근거를 마련,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안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뒤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및 이용요금, 저상버스 도입과 운

영, 기타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또 군수에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탈 수 있도록 낮게 설계된 저상버스의 도입을 위한 예산확보 및 도로, 정류장, 보도의 정비 등 행정적 조치와 지원시책을 마련토록 의무화해 활성화되도록 하고, 수시로 점검해 개선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관리와 이용자격 확인, 이동지원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제공,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어려운 이웃돕기 공동경작 잇따라

손양면 농업경영인회 · 양양군4-H연합회 미담



손양면 농업경영인회(회장 김역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공동경작에 나서 미담이 되고 있다.

김역수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지난 5월 손양면 주리 풀순밭에 위치한 규모 8,250㎡의 임차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하기 위해 모내기를 한데 이어 오는 9월 수확을 목표로 알뜰살뜰 관리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손양면 농업경영인회는 공동경작으로 수확한 벼를 올해도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100가구에 가구당 4kg씩 쌀로 전달할 계획이며, 별도로 야간산불 순찰조 활동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도 역시 공동으로 모아 어

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기금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농업경영인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나서자 양양군 4-H연합회(회장 박재흥)도 지난 5월 서면 오색1리에 5,940㎡의 임차농지에 공동 모내기를 하고 수익금을 함께 기금화하기로 결정해 미담이 되고 있다.

김역수 회장은 “지난해 처음 시작된 어려운 이웃돕기 임차 공동경작사업이 농업인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확대되고 있어 보람이 크고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와 지역농업이 상생의 장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샘재골 송이마을 옥수수축제 성료

19일 현북면 상광정리사·송어 맨손잡기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에 도전하고 있는 현북면 상광정리 ‘샘재골 송이마을’이 오는 19일 제2회 옥수수축제를 열었다.

송이마을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양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농촌의 여유로움과 전통 먹거리인 옥수수의 체험행사를 통한 관광이미지를 높였다.

특히 올해 2회째 열리는 옥수수축제는 다 자란 찰옥수수의

수확체험을 비롯해 송어 맨손잡기 체험행사도 특별이벤트로 마련돼 농촌의 여름추억을 선사했다.

송이마을은 이날 축제장에서 난타 등 다양한 초청공연과 시식코너도 준비해 피서객들에게 체험행사의 즐거움을 전했다.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열리는 옥수수축제는 여름철 인기 있는 먹거리로 체험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주민들에 희망의 파발마 역할”

강희석 초대 현북우체국장...별정우체국서 일반우체국 전환

“현북면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파발마 역할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지난 1일자로 취임한 강희석(45, 6급, 사진) 초대 현북우체국장은 그동안 개인 소유의 별정우체국에서 강원지방우정청 소속의 일반우체국으로 전환된 만큼 친절한 우편서비스로 고객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강 국장은 우선 일반우체국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자신을 포함한 3명의 직원들이 고객들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안락한 분위기 만들기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특히 오지마을이 많은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려 우편배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체계적인 우편배달 지도를 그려가며 보다 나은 우편서비스 제공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또 지역주민들 모두 현북우체국의 귀한 고객이라는 마인드로 지나가는 길에도 편하게 들려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아늑한 공간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곳이 바로 우체국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오지마을의 우편배달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와 함께 주민들의 일상도 챙겨보며 친밀도를 높여 지역과



상생하는 현북우체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근순 양양우체국장도 지난 1일 관내 4개 우체국장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현북우체국의 일반우체국 전환을 축하하며 격려했다.

임 국장은 “세밀한 우편관리와 친절한 서비스가 장점인 강희석 현북우체국장이 앞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며 지역주민들과의 상생에 힘써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현재 관내에는 강현, 손양, 수상우체국 등 3개 우체국만 별정우체국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현북우체국은 어성전과 법수치 등 오지마을이 많아 상대적으로 우편배달에 어려움이 크지만 집배원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우편배달로 지역주민들의 손과 발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양양문화복지회관 이용편의 확충

수영장 개선공사...문화예술 중심시설로

우리군이 주민들의 발길이 잦은 문화복지회관의 이용편의를 위한 개선공사를 추진한다.

군은 지난 2004년 12월에 개관한 문화복지회관이 최근까지 이용객들이 많이 찾고 있어 이에 걸맞은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복지수요 충족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유일한 실내수영장은 이용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영장 동·서쪽의 기존 옹벽을 철거하고 외벽창호를 설치, 통풍 및 환기가 잘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남녀 수영장 탈의실의 구조개선을 위해 벽을 철거하고 신설하며 샤워장 천정, 전등, 환풍시설을 교체하는 한편 수영장 매표소 공간확보를 위한 벽체신설 및 소화전 이전

등 수영장 용수교체 시기에 맞춰 구조개선 및 정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화복지회관에 컨벤션 기능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중심시설로 차별화해 나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환경정비 등을 통해 이용편의와 보다 효율적인 관리에 나선다.

양양문화복지회관은 수영장과 체력단련실의 체육시설, 430석의 공연장, 84석의 소강당, 전시실, 동아리방의 문화시설과 자원봉사센터, 지체장애인협회, 정보화교육장의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연중 이용 가능하다.

현재 수영장 1일 이용요금은 성인 3천원, 군인·청소년 2천원, 경로·어린이 1천5백원이다.

“우리역사 바로 배워 보람 커요”

우리군새마을회, 영월서 역사문화탐방 실시



우리군새마을회(회장 김광래)는 지난달 26일 우리역사 바로 알기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역사문화 탐방을 실시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자긍심을 높였다.

이날 학생 30명과 새마을문고 지도자 32명 등 62명은 영월군을 찾아 조선시대 단종임금의 애사가 서려 있는 장릉과 청룡포

등을 둘러보고 당시의 역사를 바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김광래 회장은 “이번 문화탐방은 생생한 현장학습을 병행하는 효과를 더한 것이 보람이 크고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더욱 열심히 공부해 미래주역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양우체국 모의 소방훈련 실시



양양우체국(국장 임근순)은 지난달 25일 오전 직원들을 비상소집한 뒤 가상의 화재발생 상황을 설정하고 초기대응

요령과 피난, 의료구호 활동 등 모의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양양우체국 직원들이 소화기 작동방법을 시연하고 있다.

알림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민선6기를 맞아 우리군은 군민들의 참여마당을 더욱 넓히기 위해 양양소식지에 여러분들의 귀중한 의견이나 글, 사진 등 생활 속에서 잔잔하게 이뤄지고 있는 활동을 신고자 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기획감사실 홍보담당 670-2012

양양교육도서관 여름방학 수강생 모집

7개 프로그램...오는 13일까지

양양교육도서관(관장 전인희)은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감성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열 두 마당 전통놀이’, ‘잉글리시 팡팡!’, ‘창의력 UP! 나만의 작품 만들기’, ‘실력 쑥쑥! 논술탄탄’, ‘지

구분을 돌려라, 일곱 빛깔 세계 탐험’, ‘통기타 교실’, 중학생 위한 ‘교과서 속 좋은 글 여행’ 등 7개 프로그램으로 흥미롭고 자기주도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진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양교육도서관 홈페이지(www.yanglib.or.kr)를 참조하면 된다.

“고향 찾아 자장면 봉사 실천”

강릉시 중화요리협회, 400명 대상...현남출신 최건도 회장 주선



강릉시 중화요리협회(회장 최건도) 이웃지역인 현남면을 찾아 자장면 봉사를 실천해 미담이 되고 있다.

일우회 회원 30명은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현남면을 방문해 복지회관에서 관내 65세 이상 노인 400명을 초청해 자장면 400인분과 탕수육 100인분을

무료로 대접해 고마움을 샀다. 1978년 창립한 강릉시 중화요리협회는 지난 36년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자장면 봉사를 실천해오고 있으며, 현남면 상월천리가 고향인 최건도 회장의 주선으로 이번에 고향에서 자장면 봉사를 하게 됐다.

생활주변 방제활동 주민들 호응

양양국유림관리소, 9월까지 도내 14개 시군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택암)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초미립자 살포기를 활용한 생활주변의 병해충 방제를 실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방제대상은 흰불나방과 오리나무 잎벌레 등 산림병해충 발생지 주변의 국유림 연접마을, 방제를 지원받지 못하는 산간마을 및 사회복지시설,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 거주지 등으로 속초·고성·양양군을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생활권 주변 방제와 함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따른 부산물을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겨울에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겨울 땀감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택암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방제활동으로 찾아가는 산림행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생활권감형 병해충 방제활동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 ⑦

목 차

- I. 문제의 제기
- II.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
 - 1. 오색령의 지명에 관한 기술
 - 2. 한계령으로 지명 변천 기술
 - 3. 오색령·한계령 고증 비교
- III. 오색령 지명 복원의 당위성과 복원절차
 - 1. 오색령 지명 복원의 당위성
 - 2. 현행법상 지명 복원절차
- IV. 맺는 말

III. 오색령 地名 復元의 當爲性과 復元節次

1. 오색령 지명 복원의 당위성

지금의 한계령(寒溪嶺)은 오색령(五色嶺)이다. 오색령이란 지명의 효시(嚆矢)는 조선 선조실록(1596년)에 처음 등장하여, 이때부터 계속 오색령으로 불리어 왔다. 이곳은 행정구역상으로 양양군에 속해있다.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4번지) “오색령(五色嶺)은 강원도 양양군 서쪽 23km지점에 있는 고개, 이 고개를 넘으면 인제군에 이른다. 고개아래에는 옛날의 역원(驛院)이 있었다. 한편 협천(峽川)이 험하여 역(驛)을 간성(杆城)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 고개의 조금 북쪽에는 온천(溫泉)이 있다.”라고 기록되었다. [김익달(金益達) 『대백과사전(大百科事典)』, 4권 783쪽 참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문헌·지지자료·지도에

한결같이 오색령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양양에서 인제로 넘어가는 영로(嶺路)는 각종 문헌을 통해서 볼 때 대표적으로는 소동라령(所冬羅嶺)과 오색령(五色嶺)이 있었다고 하겠으며, 동여도(東輿圖)에 오색령(五色嶺)은 고대로(古大路)라 병기(併記)되어 있다.

오색령은 “양양사람들이 설악산을 넘어서 인제군이나 서울로 갈 때 주로 이용되던 험한 산길이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산 도둑이 들끓어 해가지면 이 고개를 넘지 말라는 뜻으로 양양군 서면 오가리(오색리)의 길 옆 바위에 금표(禁標)라고 새겨두었다. 지금도 그 바위가 있으며 한계령에 오르는 길에는 금표교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음 백과사전 참조> 현행사용 되는 지도상에 양양군과 인제군의 경계는 영(嶺)마루 선이 아닌 인제군의 한계천(寒溪川) 마지막 지계곡인 도둑바위골로 100여m내려간 곳이다. 도둑바위골에 대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금표암과 도둑바위골이 현재까지 상존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동·서 영로(嶺路)임을 입증하는데 또 하나의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조선중기를 전후하여 소동라령(所冬羅嶺)이 도로(道路)의 기능을 상실하자, 오색령은 새로 개척한 도로상에 위치한 영(嶺)으로 분명히 소동라령(所冬羅嶺)과는 별개의 지명이다. 혹자는 소동라령이 현재의 한계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지도(輿地圖) 1736-1767년, 해동지도(海東地圖) 1678-1752년, 팔도지도(八道地



圖1767-1778년), 좌해분도(左海分圖) 1787-1795년, 청구도(靑邱圖) 1834년, 좌해지도(左海地圖) 1830년 등에는 오색령과 소동라령은 전혀 다른 위치에 표기 되어있다. 북쪽의 오색령(五色嶺)은 설악산의 주봉에 가장 가깝다. 이로써 보면 오색령(五色嶺)과 소동라령(所冬羅嶺)의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소동라령(所冬羅嶺)은 오히려 구룡령(九龍嶺)에 인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악산의 주봉에 근접한 오색령의 위치로 볼 때 지도상의 오색령은 현재의 한계령임이 분명하다.

반면 한계령이란 명칭이 한 때 동여도에 표기 되었다가 대동여지도에서는 삭제된 지명이었지만, 동여도(東輿圖)상에 표기된 한계령로(寒溪嶺路)는 양양군 소천면(所川面) [지금의 속초시지역]의 소양치 위쪽을 지나 인제군 북면 백담사를 경유하여 남교리(嵐校里)로 연결된 도로로 현재의 한계령 도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속>

국가가 보증하고 강원도가 권장하는 주택연금 안내

- 100세 시대, 자식에게 물려 줄 것은 집이 아니라 “어르신의 행복한 인생”입니다.
- 주택연금은 생활비가 부족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평생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 집값이 떨어져도 똑같은 연금을 받고, 오래 사셔서 집값보다 더 받으면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집값보다 덜 받으면 자녀상속해주는 국가보증제도
- 혜택 : 재산세등 세금감면과 면제, 평생 거주 평생 소유권 보장
사망후 배우자도 같은 금액의 연금 지급, 연금소득세 공제
기초연금 수급가능성 확대, 국가보증으로 절대 안전 등
- 신청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지사 ☎ 259 - 361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공유토지(2인 이상 공동 소유의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363호, 2012. 2. 22. 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니 아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자분들은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행기간 : 2012. 5. 23. ~ 2017. 5. 22.(5년)
 - ※ 법률 제12634호, 2014. 5. 21. 시행으로 기간이 2년 연장됨
- ◇ 적용지역 : 전국일원
- ◇ 적용대상
 - 공유토지(2인 이상 공동 소유의 토지)로써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신청함
- ◇ 수혜사항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토지분할 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함.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부서(☎ 670-2152, 2151)로 문의 바람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지원 안내

경제적인 부담으로 디지털방송 시청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저렴한 디지털TV 보급 및 요금제 도입을 실시 합니다.

보급 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 계층
 - 자활근로자, 의료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족,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중 일부(수신료 면제대상), 시청각장애인

보급 상품

- 아날로그 TV만 보유한 가구는 저소득층 전용 디지털TV 보급
- 다양한 디지털방송 매체 선택 지원 (택1)
 - ① 지상파 직접수신시 안테나 설치 무상지원
 - ② 케이블TV 저소득층 전용 상품 및 요금감면(20~60% 이내)
 - ③ IPTV(KT, SKB, LGU+) 요금감면(30% 내외)
 - ④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요금감면(30% 내외)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전화접수 124 (디지털TV 보급 지원센터)
- 신청기간 : '13. 12. 2. ~ '14. 12. 31. (총 사업기간 : 2017. 12월말)

미래창조과학부

RASA 한국전파진흥협회

강원도 통합브랜드



2014년 건강보험 혜택이 이렇게 확대 됩니다

-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14.7~)**
 - (‘14년) 75세 이상 → (‘15년) 70세 이상 → (‘16년)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예정
 - ‘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적용(75세 이상)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한 연령 기준 적용예정
-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시범사업 확대 추진**
 - (기관수) 총33개병원 : 2013년 13개병원 + 2014년 20개병원 추가
 - (사업기간) ‘14년 1월~ 예산소진시까지 : 총 185억 규모
-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가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14.1월부터, 실제지원은 3월부터 시작되며 1월로 소급지원)**
 - 병역의무 이행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는 애로사항과 현역병과의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직장가입자 중 휴직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4대보험료를 편의점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14.4~)**
 - 종전에는 ‘현금카드’로만 납부하실 수 있었지만, 전국 2만3천개 편의점에서 4대 보험료 현금 납부 또한 가능해집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체계를 개편하고, ‘치매등급(가칭)’을 도입하여 더 많은 어르신께 혜택을 드리겠습니다.(‘14.7~)
 - 장기요양 등급체계 확대개편(3개등급→5개등급)
- **속초시사는 매월 전직원 윤리경영 및 반부패 청렴교육 등 특화사업 실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속초지사(☎1577-1000www.nhis.or.kr)

일자리 찾으시나요? 취업성공패키지

1. 우리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구직의욕 강화와 취업계획 수립,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단계적 개인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일자리를 찾으시는 구직자 중 아래표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이하인 경우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패키지 I 유형	27,108	46,157	59,711	73,265	86,819	100,372
패키지 II 유형	직장	45,180	76,928	99,518	122,108	144,698
	지역	54,216	92,313	119,421	146,529	173,637

- ♣ 방문신청: 속초시 동해대로 4178 엠클리닉빌딩 3층
- ♣ 참여자격: I 유형(만18~64세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이하인자) II 유형(청년층 만18~34세 이하, 중장년층 만35~64세 이하)
- ♣ 지원내용: 1단계(4회상담 10~20만원지급)→2단계(직업훈련수당 최대 284,000원)→3단계(집중취업지원)→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 I 유형에 한함)
- ♣ 제출서류: 저소득층·중장년층(신분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청년층(신분증, 등본, 졸업증명서)
- ♣ 문의 : 고용노동부 속초고용센터 033)630-1919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기구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추진계획

- ◆ 사업대상
저소득세대(위기가정) 중 가족구성원의 복합적인 문제로 가족해체 위기에 있어 집중 상담이 필요한 가구
- ◆ 지원프로그램 : 심리상담 전문가를 활용한 상담치료(종합사회복지관 연계)
- ◆ 사업예산 : 5,000천원
- ◆ 사업기간 : 2014. 7. ~ 2014. 12.
- ◆ 치료전문가 및 분야
치료전문가 : 심리상담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치료분야 : 개인, 집단상담, 사이코드라마

2014년 8월 7일

주민등록번호!!

주어셔도
받아셔도 안됩니다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파기할 때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는 법령이 없다면, 수집하지 마세요.
유출되면 최대 과징금 5억원이 부과됩니다.

안전행정부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는
24시간, 365일
온라인 민원 안내·열람·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O.K!》

- ◆ 인터넷발급 민원 : 총 1,181종 가능
-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하여 바로 출력하여 증명민원 수령

민원사무명	인증서	수령방법	비고
주민등록 등·초본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 국가유공자(유족) 확인 등 지적도·임야도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그 외 다수	필요	전자발급 (프린터 출력) ※ 발급 통수와 관계 없이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유료 수수료 별도

※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유료이나 인터넷으로 신청·교부 될 경우 상당수 무료로 발급됩니다.

- ◆ 어디서나민원처리 민원 : 총 109종 가능
-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 후, 수령지를 선택하여 방문하여 수령하는 민원사무

민원사무명	인증서	수령방법	비고
병적증명서 재확증명 성적증명 졸업증명 / 졸업예정증명 대학(교) 휴학 증명 등 그 외 다수	필요 (일부 민원 불필요)	수령기관 선택 하여 방문 수령	각 민원사무에 따라 유료 혹은 무료

- ◆ 가입방법 : 민원24(<http://www.minwon.go.kr>)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민원발급

양 양 군